인사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우리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자리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현배 목사님, 대한성공회 관구장 김근상 주교님과 함께 자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SK텔레콤 정만원 사장님과 임직원,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보시란 육바라밀의 제1 수행법이자 무량공덕의 창고로 가는 열쇠입니다. 나의 재산과 시간을 댓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다면 어찌 수행이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 속 아집이 녹아내리고 복덕이 구축하여서 성불의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 온 인류가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류의 유토피아가 실현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SK텔레콤이 보시의 마음을 내고 종교, 시민단체들이 뜻을 합하여 매년 김장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재벌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들이거나 똑같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과 김치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김치가 빈부를 넘어설 정도로 중요한 필수적 영양소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 김장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며,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원만하게 회향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를 아끼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의 성공회 푸드뱅크

와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및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그리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여러분과 적극후원하신 SK텔레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